

2025 겨울 기도편지

WILDSTEP On the Move

을 한해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복된 성탄과 소망의 새해 맞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소리를 들으며 내면의 성찰에 집중한 시간

저 자신에게 물어 봅니다. “나는 선교사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며 살아온 걸까?”

얼마 전 카타르에서 사역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동료이며, 멘토인 한 선교사로부터 책 한 권이 뜬금없이 집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Let your life speak!**” 직역하면 “**네 삶이 말하게 하라.** (한국 번역본; 삶이 말을 걸어올 때)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화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가 그에게 갑자기 있었고, 오랜만에 대화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저를 격려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조금 느리고 단순해진 삶 때문인지 저에게 많은 여운이 남는 그리고 오랜만에 온기가 느껴지는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2000 년부터 함께하며 지켜본, 그리고 많은 영감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나는 무엇을 진정 추구하며 살아왔고, 무엇을 삶을 통해 이루어 내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을 붙잡고 책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내면의 소리를 듣기에 집중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기억보다 수 많은 실패와 실수가 되 내어지고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힘겨웠습니다. 비전과 소명을 믿고 선택했던 수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다 좋은 결과로만 남지 않았다는 자괴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당연히 삶을 돌아볼 때 갖게 되는 후회보다는 내가 살아온 삶이 결국 가장 나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었고, 가장 문성홍 다운 삶이었고, 그 삶이 결국 세상에 말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젊은 날 선교사의 꿈을 갖고 시작한 삶의 첫 걸음부터 발견한 나는 부족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고 극복하면서 갖게 된 젊은 선교사 후보생들을 돕고 성장시키고자 애썼던 삶, 더 나아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찾아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돕고자 했던 노력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수 많은 성공과 실패의 순간들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자라온 나의 삶... 그 자체가 다시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곳에 와서 꿈을 찾고 비전을 구하는 젊은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삶의 도전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강의 보다 제가 살아온 삶을 나누며 그들 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자신의 미래를 채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제나 그랬듯이 이 곳에서 젊은이들은 조금씩 변해 갑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 가고, 자신의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얼마 전 작년 훈련을 받았던 친구가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세대가 이제는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세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계속 초대하고 계심을 확인하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올해도 겨울, 봄, 여름, 가을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간 젊은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발굴하고 훈련하여 세계 선교와 세상을 섬기는 인재들로 길러 낸다.”

어쩌면 아주 작은 꿈일 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이 사명 선언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 세대차이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훈련 온 친구들이 좋아해 주고 반겨주고 함께 웃고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이 마음 계속 지켜가며 나아가실 다짐합니다.

올 해도 그들과 함께하며 동기부여 받고 웃고 행복했습니다.

◆ 모로코 현지 사역

이번 가을에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훈련생들을 만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먼저 가족을 좀 챙겨야 하는 일 들이 많았고, 주방을 지원하고 하는 중요한 선교사가 임신을 하게 되는 등으로 매년 해 오던 겨울 훈련을 한번 쉬어 가게 되었습니다. 매년 해 오던 훈련을 이제 익숙함을 버리고 새롭게 구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을 잘 돕는 방법에 대해 전면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구상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대신에 모로코 현지에 가서 3개월 정도 현지 교회를 섬기고, 와일드스텝 사역자들과 사역을 함께 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가 올 때 까지 섬기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 앞으로 제 삶이 말 할 수 있는 가치를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은혜로운 섬김과 저 자신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 년 계획과가족을 위한 기도

문성홍 선교사 개인과 가족 이야기

올 한 해가 제게는 조용하고 느리게 지나 갔지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온통 가족에도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매년 영국, 한국, 선교지를 오가며 바쁘게 지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음 먹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훈련생들에게 강의하고 훈련하는 일 외에는 조용히 가족을 위해 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 청소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다행히 직장도 구해 사회속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지만 당당히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둘째는 일단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스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서 애가 타기도 하지만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부모의 마음을 배웁니다.

저희 가족 모두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2026 년 봄에는 새로운 시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가서 훈련을 하는 등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일정 등이 확정되면 다시 나누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부족한 저희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탄과 희망의 새해 맞으시길 기도하며 ...

2025 년 12 월 성탄과 새해를 맞으며 ... 사랑에 빛진 문 성홍 드림



계속되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성홍 선교사 가정 후원
국민은행 026-21-0689-442
문성홍

후원관리 박경숙 권사님
서울영천교회 010-8260-3110